



■ '박성화호 1기' 예비명단 28명 들여다 보니

청소년 대표 대거 영입
기존 멤버와 경쟁 돌입

'1기 박성화호(號)'가 운곽을 드러냈다. 림 베어백 감독이 떠난 자리를 이어받...

지난 달 캐나다에서 끝난 국제축구연맹(FIFA) 20세이하(U-20) 월드컵에서 '새로운 개념의 한국 축구 모델'을 제시했...

박성화 감독은 사령탑에 오르기 전부터 "청소년대표팀 플레이가 예상하지 않...

박 감독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도 "U-20 대표팀에서 5명 정도 끌어올리겠...

박 감독은 우즈베키스탄전 엔트리 23명을 추려 13일 최종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박성화 감독이 이미 6일부터 흥행보 코

신입 멤버 기존 멤버



<심영성> <김진규>



<기성용> <이근호>



<신영록> <백지훈>

치와 함께 대표팀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한 만큼 청소년대표 발탁에는 코치의 의...

청소년대표들의 가세로 올림픽호 주전 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기존 올...

남)와 측면 공격수 이근호(대구), 미드필더 오장은(울산)을 비롯해 한동원(성남), 김승용(광주), 백지훈(수원), 최철순(전북) 등이다.

이들은 K-리그에서도 대부분 불박이 주전으로 활약하며 실력을 검증받았다.

2차 예선을 통과하는 과정만 놓고 보면 이들이 그대로 내년 올림픽 본선까지 팀의 주축으로 가는 게 거의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공격진의 신영록, 하태근, 심영성, 이상호와 미드필더 기성용, 이청용, 오른쪽 윙백 신광훈이 경쟁에 가세하면 이들도 주전을 보장받기 힘들다.

물론 경험 면에서는 기존 올림픽대표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

반면 U-20 청소년대표는 그동안 어떤 대표팀에서도 보지 못했던 매끄러운 패스 워크와 고른 테크닉을 자랑하고 있어 만만해 볼 수 없다.

<우즈베키스탄전 예비명단 28명>

▲GK=정성룡(포항), 양동원(대전), 송유결(인천) ▲DF=정인환(전북), 김창훈(고려대), 강민수(전남), 김창수(대전), 김진규(서울), 박희철(포항), 이요한(제주), 이강진(부산), 신광훈(포항), 최철순(전북) ▲MF=백지훈(수원), 김승용(광주), 이청용, 기성용(이상 서울), 이상호, 오장은(이상 울산), 이근호(대구), 이승현(부산), 백승민(전남) ▲FW=심영성(제주), 신영록, 하태근(이상 수원), 박주영, 심우연(서울), 한동원(성남)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태극전사 4인방 날개를 펴라”

프리미어리그 11일 개막...박지성 등 화려한 부활 기대

축구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할 지구상 최고의 쇼가 펼쳐진다.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가 11일 오후 막을 올린다. 내년 5월11일까지 9개월 대장정이 계속된다.

▲전력 판도=지난 시즌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였던 맨유와 첼시가 2007~2008 시즌에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맨유는 여름 이적시장에서 나니(포르투갈), 안데르손(브라질), 오언 하그리브스(잉글랜드) 등 알짜를 데려왔다. 5천만파운드(935억원)의 거금을 쏟아부었다.

첼시도 1천350만파운드를 들여 프랑스 국대 대표 플로랑 말루다를 영입했다.

지난 시즌 3위 리버풀의 몸집임도 심상찮았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페르난도 토레스(스페인) 하나를 붙잡아오는데만 2천만파운드를 넘게 썼다. 네덜란드 대표 라이언 바벨 등 보강한 전열이 무시무시하다.

▲태극전사 4인방 기상도=올 시즌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이영표(30·토트넘), 설기현(28·레딩 FC), 이동국(28·미들즈브러) 등 태극전사 4인방은 부상과 경쟁자들의 영입으로 험난한 경쟁의

장에 내몰리게 됐다.

새 시즌을 맞는 이들 4인방의 기상도는 일단 '흐림'에 가깝다.

박지성은 무릎 인대 부상과 수술로 내년 2월까지 그리드에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영표 역시 지난 4월 무릎 수술로 일찌감치 시즌을 접은 뒤 재활에 몰두했지만 시즌 개막전 출전은 불투명하다.

이동국도 2007 아시아컵축구를 치르면서 골 결정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불안감 속에 새 시즌을 맞게 됐다.

다만 오른쪽 윙포지션 벵조카 제거 수술을 받았던 설기현은 최근 세 차례 평가전에서 두 번 폴타임을 뛰며 '흐린 뒤 햇살'이 비추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축스러운 볼 다름 아르헨티나의 팔리토 베렌(아래)과 중국의 징 콰이안 이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07 세계 하키 토너먼트 대회에서 공 다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U-17 월드컵 축구
18일부터 열전 23일

가까운 미래 세계 축구계를 주름잡을 예비 스타들의 경연장 '2007 국제축구연맹(FIFA) 17세이하(U-17) 월드컵'이 18일부터 9월9일까지 수원, 서귀포, 울산, 광양, 창원, 천안, 고양, 서울 등 국내 8개 도시에서 펼쳐진다.

대륙별 예선을 거친 24개국이 출전하는 이 대회는 FIFA가 주관하는 '월드컵 시리즈' 중 가장 연령대가 어린 '영건'들의 무대다.

17세 이하로 출전이 제한돼 199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국대 대표들이 참가한다.

보통 축구 각국자들은 만 17세란 나이가 선수로서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설명한다. 연령대별로 U-15, U-16 국제대회도 있지만 17세가 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실력을 따지기에 이른 느낌이 있다.

따라서 U-17 월드컵은 향후 5년, 10년 뒤 세계 축구의 판도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미래의 월드컵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남북정상회담에 올림픽 단일팀 금물살

남북한이 7년만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년 앞으로 다가온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단일팀 출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분단 60년사에서 가장 활발한 교류를 펼쳐왔던 체육계는 이미 1991년 탁구와 청소년축구에서 단일팀을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했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는 최초로 남북한 선수단이 개최식에 공동입장했다.

이같은 여세를 몰아 남북한은 2004년 2월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파견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3년째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선수단 구성 방법에 이견을 보여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러나 이달 말 평양에서 펼쳐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육교류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방안이 금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실 남북한은 4차례 체육회담을 통해 밀그림은 대중 다 그려놓은 상태다.

단일팀이 구성될 경우 국호는 '코리아

(KOREA)', 단기는 '독도가 새겨진 한반도기', 단가는 '아리랑' 등에 모두 합의했고 합동 훈련방안까지 의견을 주고받은 상태다.

또한 선수 구성에 있어 개인종목의 경우 올림픽 티켓을 획득한 선수를 모두 출전시키기로 이미 IOC의 합조까지 얻었다.

내년 8월 베이징에서 열릴 하계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이 '통일열차'를 타고 참가할 수 있을 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부동산 전문기업. 24시간 상담센터. 011-635-7939, 010-3114-6103

대인동상일부동산.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LC타워(주) 첨단지구 LC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 이상

일가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매. 분양권 매매. 토지매매. 부동산 매매. 경매·공매.

동아공인중개사. 여의실장님을 모십니다. (년수익 1억보장). 부동산 매매·공매.

국민공인중개사. 전. 판. 011-635-7939, 010-3114-6103. 주유소 전문중개. 부동산 매매·공매.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부동산 전문기업. 24시간 상담센터. 011-635-7939, 010-3114-6103. 2006년도 광주지역 예식장 선호도!!